

(겉표지)

리살레이 누르 전집 중

이슬람 신앙 그 참된 이야기

베디웃 자만 싸이드 누르시

23 Söz
Korece Tercümesi

Neşreden:

İHLÂS NUR NEŞRİYAT

Sanayi Ticaret Ltd. Şti.

Sanayi Cad. Sanayi Han A-Blok

No: 23/69 Ulus – ANKARA

Tel: +90(312) 324 27 09 Faks: +90(312) 309 13 05

Web:www.nur.web.tr

e-mail:nur@nur.web.tr

ISBN 975-8785-58-3

Ankara – 2006

© İHLAS NUR NEŞRİYAT

역자 서문:

베디웃 자만 싸이드 누르시와 리쌀레이 누르에 대해

베디웃 자만 싸이드 누르시는 1873년 터키 동부의 누르스Nurs 마을에서 태어나, 이슬람을 위한 끝없는 자기 성찰과 희생 그리고 영적 투쟁(지하드)을 통해 오늘날 사는 모든 무슬림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모범적인 생애를 보낸 후, 1960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금세기 최고의 이슬람 사상가들 중 한 명이다.

유년기에 그가 보여 준 학습욕, 그를 뒷받침할 만한 총기와 자질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을 경탄케 했던 베디웃 자만은, 청년기에 이르러서도 마르지 않는 지적 욕구와 번뜩이는 예지로 인해, 그의 나이 16세 때, 당시의 지성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신학적 논쟁에 뛰어 들었다.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며 당시의 뛰어난 학자들과 벌인 그의 신학적 논쟁, 그리고 그들을 침묵케 했던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은 그에게 ‘베디웃 자만Bediuzzaman’, 곧, ‘시대의 성인’이라는 예명으로 추앙 받게 하였다.

유년기와 청년기의 학교 교육은 장차 그의 사상적 근간과 배경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그의

언명은 그가 왜 당시에 ‘시대의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교육 환경은, 유럽식 교육 체계의 유입과 그에 따른 기존의 전통적 교육 특히 종교 교육과의 마찰로 그 문제가 극에 달하였다. 이런 시대적 환경의 피해자인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는 이미, “이제 세계는 과학과 논리가 지배하는 새로운 시기에 돌입할 것이며, 그 때의 전통적 신학 교육 체계는 더 이상 코란과 이슬람에 기초한 세계관을 보여주지 못할 것”임을 꿰뚫어 보았으며, 인류를 위한 유일한 생로(生路)는, 이 두 세계관의 대립과 투쟁의 결과물로서 어느 한 길에 대한 강요적 선택이 아니라, 두 세계관의 조화와 상호보안에 달려 있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후일, “종교 과학은 의식의 빛이며, 과학 문명은 지성의 빛이기 때문에, 진리는 이들의 결합으로 명확해 질 것”라는 신념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신념으로, 베디웃 자만은 종교 과학과 과학 기술을 동시에 가르치는 학교의 필요성을 제창하였고 개인적으로 당시의 여타 종교 학자들과는 달리 유럽식 물리 수리 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탐구에 몰입하였으며, 동시에 이를 위한 실제적인 사회 운동 즉 그러한 학교 설립을 위하여 당시의 황제와 면담하는 등의 운동을 벌여 나갔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사상적 구심점은 여전히 코란이었다. 이를테면, 그의 유년기 시절의 또 다른 언명은 이슬람 사상가로서의 베디웃 자만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내 주고 있다.

당시 이슬람권에 널리 퍼진 영국,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식민정부들의 ‘작금의 이슬람권의 몰락은 다름아니라 이슬람이란 종교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명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이슬람 식의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는 정신 문화 개조에 맞서 ‘나는 성 코란이 결코 사그라지지도 않으며, 꺼질 수도 없는 태양임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베디웃 자만은 단언하였다.

즉, 기존 이슬람 신학자들의 구태의연한 과거 지향적 이슬람 세계관이 현재의 이슬람권 몰락의 한 축임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서구식 물질 과학 중심적 세계관이 그의 사상적 배경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학자로서 그리고 사회 운동가로서의 베디웃 자만의 이슬람을 축으로 한 투쟁은 1차 세계대전 전후에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그의 활동은 민중적이고 반정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 그는, 학생 교육과 신학적 논쟁 등의 민중과 함께 하는 운동 등을 통해, 기존의 이슬람 세력과 정치 현실의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물론 이러한 도전은 오스만제국 말기의 군부를 정점으로 한 기존 정치세력의 끝없는 질시와 견제를 받아 그가 머물던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하였으며, 이 후 그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 정치적 박해와 투옥으로 점철된 고통의 세월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1914년 터키 동부 지역에 침략한 러시아 군을 맞아 민군을 조직하여 이끄는 등, 이 시기까지 베디웃 자만은 민중 이슬람의 사회 운동가로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민중적이고 반정부 투쟁으로 점철된 이 시기까지를, 베디웃 자만 그 자신은 ‘구 싸이드’

시대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오스만제국의 붕괴와 외세의 이스탄불 장악이라는 격심하게 표류하는 터키 현대사의 변혁기와 맞물려, 그 또한 자신의 새로운 사상을 전환을 의미하는 ‘구(舊) 싸이드’에서 ‘신(新) 싸이드’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보스포러스 해협과 그 너머 아시아 대륙이 굽어보이는 이스탄불의 에윽Eyub 사원에서 베디웃 자만은 자신의 세계관의 새로운 전환을 경험한다.

이 ‘새로운 싸이드’의 특징은, 1920년대 ‘동부의 폭동the Eastern Rebellion’을 일으켰던 민중 단체의 대표자들이 거사를 일으키기 전 그의 지지를 구하려고 찾았을 때 그들에게 답한 내용에 잘 드러나 있다:

“당신들의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단 몇 몇의 죄인들을 단죄하기 위해 수백, 수천의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즉, ‘새로운 싸이드’로서의, 그의 두 번째 삶은, 이전의 반정부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의 삶을 지향하고, 비정치적이고 간접적인 투쟁, 이를테면 인간의 삶과 연관된 모든 투쟁의 해법으로서의 코란의 진리를 현대인의 이성과 논리에 맞게 증명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전달하여 자연스러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으로 유도하는 운동 즉 저술 활동의 시기였다.

그러나, 이슬람의 참 진리와 관용 정신 그리고 형제애를 피력하고자 온갖 노력을 경주했던 이 시기의 베디웃 자만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신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이미 그 자신의 존재는, 유럽 문명 모델을 지향했던 당시의 집권 세력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종교를 이용 민중을 선동해 자신들에게 던져질 수 있는 시한폭탄에 다름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후의 그의 삶은, 1925년 서부 아나톨리아로 추방을 시작으로, 투옥과 박해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라곤 전혀 없는 곳으로의 유배라는 긴 고통과 외로움의 나날로 점철되었다.

이 고난의 개인사는, 그러나, 그의 붓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자연으로 둘러싸인 유배 환경은, 그의 저술 활동에 커다란 영감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이 6000여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리잘레이 누르Risale-i Nur’ 곧 ‘빛의 서(書)’ 전집이다. 당시의 세속정치는 무슬림들에게는 암울한 현실이었으며, 이런 현실에 과학적 논리와 세계에 대한 통찰로 가득찬 리잘레이 누르는 그 제목 그대로 그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 빛은, 아나톨리아의 한 유배 마을에서 시작하여 터키 전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으며, 이를 추종하는 무슬림들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당시까지 쓰여진 리잘레이 누르의 필사본이 60여 만장을 넘었다고 전해진다.

리잘레이 누르는, 베디웃 자만을 베디웃 자만으로 존재케 한 저술이다. 그 자신도 “나의 삶 대부분은 내 자신의 자유 의지, 인식 능력 그리고 통찰력에 반하여 그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 왔으며, 그 방향은, 나로 하여금, 성 코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책을 쓰게 하였으니, 이 전집(리잘레이 누르)이 바로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학자로서의 나의 전 생애는 성 코란의 기적을 증거 하는 이 전집들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리쌀레이 누르를 중심으로 자기 삶을 평가하듯, 이 전집이 곧 베디웃 자만 자신인 것이다. 그리고 베디웃 자만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여성 무슬림 작가인 마리얌 자멜라Maryam Jameelah가 말하듯, 현대 터키에서 이슬람의 그 질긴 생명력과 부활을 잉태한 장본인이다. 오늘에 이르러 베디웃 자만의 사상(베디웃 자만의 사상과 생애 그리고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ediuzzaman.org를 참조)은, 많은 추종자 그룹들, 일명 누르주 그룹들로 계승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이 그룹들 중에서도 특히 페툴라 굴렌 호자 에펜디Fetullah Gulen Hoca Efendi(금세기 이슬람의 대 석학들 중의 한 명으로 잘 알려진 페툴라 호자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민미디어에 의해 출간된 *이슬람에 대한 질문들*이나, www.fgulen.org 참조)를 중심으로 한 누르주 그룹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리쌀레이 누르는, 무슬림이건 아니건 오늘을 사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 갈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이성과 논리에 맞게 코란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쓰여졌다. 이 전집의 저술 동기는, 과학과 종교의 이중화가 더욱 심해져 가는 현실과 그리하여 종교가 종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그 대신에 물질주의 철학으로 깊게 물들어 가고 있는 피폐된 인간의 심성에, 이슬람이라는 빛을 던져주려는 함에 있다. 이런 동기에서, 리쌀레이 누르는, 물질주의 철학이 풀지 못하는 문제인 신과 인간 그리고 우주의 본질, 그리고 이 삼각 구도를 서로 연관짓는 선분으로서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며, 곧

신앙의 빛을 통하여 볼 때의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동기와 주제를 리살레이 누르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론적 특징으로 풀어내고 있다.

첫째, 리살레이 누르는 코란의 주해서이다. 그러나 기존의 다른 주해서들처럼 단어나 문장의 외형적 의미나, 계시의 배경, 그 순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해석서가 아니라, 코란이 말하는 진리들에 대한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찰에 근거한 주해서이다. 따라서 리살레이 누르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구절들은, 신의 아름다운 이름들과 속성들, 유일성이나 부활, 신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의무들과 관련된 구절들이다.

둘째, 리살레이 누르는 신학에 대한 논리적 해석이다. 베디웃 자만은, 코란이 인간의 모든 역사, 모든 세대에 맞게 계시되었다는 구절에서 출발하여, 그렇다면 코란이 어떻게 인간의 각 세대에게 그들의 이해력의 진전에 맞게 그 계시를 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곧, ‘코란은 각 세대에게 면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리살레이 누르는 이 시대에 면한 코란의 얼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 시대의 얼굴인 이성과 논리에 맞게 코란을 재해석하고 있다.

셋째, 리살레이 누르는 영적 투쟁(영적 지하드)에 관한 서(書)이다. 베디웃 자만이 현대인들의 바쁜 시선을 리살레이 누르에 붙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방법론적 요인은, 그가 ‘영적 투쟁’을 핵심어로 채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대의 이성적 과학 문명의 진정한 적은 물질주의와 무신론, 그리고 이 사상들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물질주의 철학으로 간주했다. 베디웃 자만에 따르면,

이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무기는, 사람의 심성에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신앙이 증거한 진리의 길로 그들을 이끄는 것이다. ‘믿음’은 ‘무력’으로 얻거나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무력’으로 증거 될 진리는 있지도 않다. 그럼으로, ‘믿음’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슬람의 지하드로서의) 무력적 투쟁과는 애초에 관련이 없으며, 그것은 오직 ‘영적 투쟁’으로 획득될 수 있는 것임을 베디웃 자만은, 그의 제자들과 추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리쌀레이 누르를 통하여 피력하고 있다.

베디웃 자만의 리쌀레이 누르 전집 중 첫 한국어 번역서가 되는 이 소책자는, 그 전집 중 특히 이슬람 신앙에 대해 증점적으로 다룬 4개의 장을 선별하여, 터키 원문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다. 이 소책자에 포함되어 있는 4개의 장을 선별함에 있어, 영문판 소책자 *Belief and Man* (Bediuzzaman Said Nursi, *Belief and Man*, trc. Sukran Vahide, Sozler Nesriyat, Istanbul-1992.)과 이스마일 뷰육 첼라비 박사를 위시하여 리쌀레이 누르의 전문 학자들인 터키의 여러 선생들의 조언을 참조하였다.

그 방대한 양의 리쌀레이 누르 전집 중 굳이 신앙에 관련된 부분을 첫 번역서로 채택하게 된 것은, ‘신앙’이 전집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더욱 현실적 이유는 한국어로 된 이슬람 서적들 중 신앙에 관한 소개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종교로서 그리고 학문으로서 이슬람에 발을 들여 논 이래로, 상당히 자주 이슬람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무슬림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들어 왔다.

그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종교적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특히 이슬람 신앙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으며, 이 분야의 서적의 종교적, 학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해 주셨다. 약속을 훨씬 지나 늦게나마 발간하는 이 소책자는, 일차적으로,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책이다.

원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슬람 신앙의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어휘를 위주로 터키어 원음을 단어의 옆에 붙여 놓았다. 이는, 이슬람 전문 용어에 대한 우리말의 어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서이기도 하거니와, 저자가 강조한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들 같은 단어를 원어 그대로 음미해 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 원어 그대로 음미한다는 것은, 비단 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인 수피들에게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어들을 음미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깊은 사고를 동반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비무슬림 독자 분들에게는 장차 이슬람 서적을 탐독하는데 그러한 원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였다.

본 소책자의 코란 구절의 한국어 번역은 하미드 최영길 박사의 “코란 그 의미의 한국어 번역” 판을 따랐다. 다만 본문의 앞 뒤 문맥상 필요한 몇 몇 문장에서는 그대로 원문에 나와 있는 아랍어 코란 구절을 번역하였음을 밝혀 둔다.

코란이 해라면 달에 비유되기도 하는 원서의 가치 상, 최대한 직역에 충실하려고 의도하였고 노력하였다. 비록, 지나치게 비유적 표현이나 시적 표현은 앞뒤의 논지에 맞게 조금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원문에 충실하였다. 시적 표현은 우리말의 시적 표현처럼, 오스만 터키어 부분은 근대 우리말처럼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더러 우리말 표현에 어색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터키어로 이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리쌀레이 누르의 터키어 원문을 읽고 받은 감동은 참으로 컸다. 그 감동을 전하려는 의도도 이 소책자 번역의 한 동기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받은 바 감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 두렵기만 하다. 굳이, 이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아랍어 코란과 마찬가지로, 리쌀레이 누르 전집 또한 참으로 아름다운 시적 운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율들을 고스란히 우리말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역에 대한 부분은, 모두 역자가 지닌 역량과 언어의 한계임을 밝혀둔다.

특목히 인내를 가지고 리쌀레이 누르의 한국어 번역판을 기다려준 모든 분들에게, 비록 양과 질에 있어서 그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이 소책자를 바친다.

2002년 8월 필라델피아에서

김 현철

스물 세 번째 말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우리는 인간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했나니, 그 후 그의 지위를 가장 낮게 하였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은 제외라.

(성 코란 95: 4-6)

제 1장

이 장에서 우리는
신앙이 가진 수천의 이점들 중에서
단지 다섯 가지만을
다섯 개의 요점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요점

인간은 신앙의 빛nur-u iman으로 가장 지고한 곳ala-yi illiyyi에 이르며, 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가치를 얻는다. 반면, 불신의 어둠zulmet-i kufur으로 가장 미천한 곳asfal-i safillin에 떨어져, 지옥에 부합한 지위로 전락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앙으로 지고의 창조주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신앙iman은 관계를 맺음이다. 이리함으로, 인간은 신앙을 매개로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예sanat-i Ilahiye(聖藝)와 주의 이름들을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에 반해, 불신은 이 관계를 끊는 것이므로, 불신으로 인해 주의 성예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 때 그(인간) 자신의 가치는 오로지 물질계에만 한정된다. 물질계로 말하자면 일시적이고 유동적이며, 덧없는 동물적 삶이라는 속성만을 가짐으로 그 가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신비를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의 예술품들 중에는, 작품에 사용된 재료들의 물질적 가치와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는 전혀 별개의 것인 경우가 있다. 드물게 (작품성이 낮아) 이 두 가치는 비례하기도 하고, 때론 들어간 재료가 아까울 정도의 수준 낮은 작품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때론 500원 짜리 동전 같은 재료에 50만원에 호가하는 예술적 가치가 새겨진 작품도 발견된다. 어떤 골동품은 수 백 만원 이상 되는 가치를 지닌 반면, 그에 사용된 재료의 물질적 가치는 단지 수 백 원에 불과하기도 하다. 만약 이런

골동품이, 경매장에 내 놓아져, 이전시대의 뛰어난 예술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진품임이 그리고 그 예술적 가치가 인증된다면, 그 가격은 수 천 만원이상으로도 호가할 수 있는 반면, 반대로 이 골동품이 고물장사의 손에 넘어간다면 단지 몇 백 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바로 이처럼, 인간은 전능하신 조물주Cenab-i Hakki의 오래된 예술품이다. (그 분은)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가장 자애로운 권능의 조물주이시기에, 인간을 위엄으로 가득한 그분의 모든 이름들을 드러내고, 그 모든 이름들이 새겨진 비문들을 지적하는, 이 우주의 작은 견본으로서 창조되었다.

만약, 신앙의 빛이 인간의 자아에 투영된다면, 그 자신 위에 새겨진 모든 의미의 비문들을 이 빛으로서 읽을 수 있게 된다. 신앙을 가진 자mu'min는 자신의 충만한 의식으로 그것들을 읽는 한편 나아가 그 관계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읽게 한다. 즉, “저는 영광이 가득하신 조물주의 피조물이며, 그 분의 자비와 자애의 증거입니다’와 같은 의미들로 그 자신에게 존재해 있는 성예(聖藝)을 도출시킨다. 이를테면, 창조주와의 연결로 이루어진 신앙은, 인간에 내존되어 있는 모든 성예(聖藝)을 드러낸다. 인간의 가치는 바로 이 창조의 신비로운 특성 곧 성예에 따라서 결정되며, 영원한 강구의 대상이 되시는 분Samedaniye을 반영함에 달려있다. 이와 같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은, 이 관계에 따라 모든 피조물의 위에서 신의 사신이 되며, 천국을 향한 주의 여행객이 된다.

만약 이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불신이 인간의

심성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 때는 신성의 모든 의미가 암흑으로 뒤덮이게 되어 (더 이상) 읽혀질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창조한 존재를 잊게 된다면, 창조주를 향한 영적인 면들 또한 이해할 수 없게 되니, 이는 마치 머리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역주: 정상적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거꾸로 세상을 본다는 의미). 이 때, 의미로 가득 찬 지고의 예술들이나 영적 존재들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 된다. 그 외 여타의 부분들과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조차 자연과 우연의 산물로 그 기원이 돌려져 결국 그 자신 본연의 의미를 잃게 된다. 그 각각은 눈부시게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이지만, 제각기 유리 조각이 되고 만다. 고작해야 그 가치는 그 자신의 물리적, 동물적 속성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물질의 목적과 결과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그 찰나의 생애에, 동물적 삶의 가장 중요하고, 필연적이며, 결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말 부분적인 것들이다. 이속고는 쇠하고 시들며 없어지고 말 것들이다. 이처럼, 불신은 인간성을 잃게 하고 다이아몬드를 석탄으로 변질시킨다.

두 번째 요점

신앙은 빛과 같아, 인간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며, 삼라만상에 쓰여져 있는 영광스러운 분의 모든 비문들을 읽게 한다. 나아가 신앙은 우주 전체를 비추어 주는 빛이며, 과거와 미래를 어둠에서 밝혀준다. 이러한 신비를,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니,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다* (성 코란 2: 257)

라는 코란 절의 숨겨진 의미에 관해 숙고하였을 때, 내가 겪었던 한 환영을 예로 들어 밝히고자 한다.

어느 날 한 환영을 보았는데; 높디높은 두 산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 그 위에는 위험 천만한 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의 밑은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 나는 그 다리 위에 서있다. 세상은 칠흑처럼 어둡고, 암흑만이 온 천지를 지배하고 있다.

내 오른편으론 끝없는 암흑 속에 거대한 무덤이 보였다, 아니 실은 그렇게 상상했을 것이었다. 왼편으로 고개를 돌리니, 암흑의 바다 위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기라도 할 양, 거대한 태풍과 파도가 넘실대고 있다. 교각 아래를 보니, 지독히 깊은 낭떠러지를 보고있음을 상기한다. 저 무시무시한 암흑에 마주하여, 내게는 조그만 손전등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을 켜서 그 희미한 빛으로 (사방을) 둘러보니; 참으로 무서운 광경이 내 두 눈앞에 펼쳐졌다. 저리도 무시무시한 용과 사자들 그리고 온갖 괴물들이 내 주위와 다리 위에 그득하여, “아! 이 전등이 없어서, 이 괴물들을 보지 않았더라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등의 불빛을 어디로 향하든 괴물만을 비출 뿐이었다. “아, (결국) 이 전등이 문제구나!” 라고 나는 외쳤다.

손에 들고 있던 전등에 화를 내며, 그것을 바닥에 내던져 부수어 버렸다. 마치 전등을 깨뜨림으로서,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거대한 전등의 버튼에 손을 대기라도 한 것처럼, 홀연히 어둠이 견혀졌다. 사방 천지가 그 전등의 빛으로 가득 찼고, 만물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것들을) 보니, 내가 보았던 저

다리는 평원을 가로지르는 도로였고, 내 오른쪽에 있던 거대한 무덤은 온갖 아름다움이 있는 정원으로서 신에 대한 경배와 헌신과 대화와 염원으로 가득한 곳이었으며, 왼편의 폭풍으로 난폭하기 이를 데 없었던 절벽은 이제 보니,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산맥들 뒤에 위치한 사냥, 유희 그리고 각종 오락이 넘쳐나는 성소였다.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상상했던 저 피조물들로 말하자면, 낙타, 소, 양과 염소들처럼 아주 친근하고 평화로운 가축이었다. “신앙의 빛으로 당신을 찬미하나이다Elhamdu lillahi ala nuri'l iman”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시니, 그 분은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심이라”라는 상기의 코란 절을 암송하였다. 그리고 나는 환상에서 깨어났다.

(환영에서의) 두 산은 생의 시작과 끝, 즉 이 세상과 중간계Berzah(中間界; 역주: 현세와 내세의 중간에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저 다리는 삶의 여정이며, 오른쪽은 과거, 왼편은 미래이다. 손전등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아는 것에만 의존하며, 성의 계시를 듣지 못하는 인간의 이기적 자아이다. 괴물로 묘사된 것들은 세상의 온갖 사건들과 요상한 피조물들을 상징한다. 이기적 자아에만 의존하며, 닫힌 어둠에 갇혀, 방향의 늪에 빠진 사람은 위의 예에서 첫 번째 상황과 비슷하다 할 것이니, 손전등처럼 잘못되고 부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거대한 무덤의 형상으로 그리고 무존(無存)의 암흑으로 본다. 미래를 우연에 영향 받는 폭풍의 장소로, 전능과 관용으로 충만한 주Hakim-i Rahim의 충직한 관료들인 사건들과 존재들을 괴물로서 인식한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의 보호자는 악이거늘,

그들을 광명에서 암흑으로 이끈다”라는 코란 절을 증거한다.

그러나 만약, 성의 인도하심을 얻고 믿음이 마음에 들어서며, 자아의 폭정을 없애고, 성서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위의 예의 두 번째 상황과 비견될 만하다. 이러한 때, 홀연히 우주가 낮의 빛을 얻어 성광nur-u Ilahi(聖光)으로 가득하게 된다. 세상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빛이시니’ 라는 구절을 읽는다. 이 때, 과거는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무덤이 아니며, 오히려 각 시대의 선지자들 또는 성인들의 영도 하에 경배의 의무를 다하였던 정화된 영혼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Allahu ekbar* 라고 외치면서, 높은 지위를 얻고 미래로 향하였던 (바로 그러한) 과거임을 마음의 눈을 통해 본다. 왼편을 보거니와, 중간계와 내세의 산악들 너머로 천국의 정원들 내의 환희의 궁전들에 세워진 자비이신 분의 성소를 신앙의 빛으로, 먼 곳에서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태풍과 지진 같은 재앙들 각각은 실은 (그 분의) 충직한 관료로서, 봄의 산들바람이나 비와 같이 부드럽기 그지없는 (그 분) 지혜의 예증들을 위한 수단됨을 이해하게 된다. 나아가, 죽음을 영생을 위한 서곡으로, 무덤을 영원한 기쁨을 위한 문으로 이해한다. 이 이상의 의미들은 독자 분들 스스로 비교해 보길 바란다; 그 비교에 진실을 첨부하시길!

세 번째 요점

신앙은 빛nur이자 힘kuvvet이다. 그러하거니와, 참 신앙을 얻은 사람은, 온 우주에 도전할 수 있고, 자신 신앙의 능력에 따라 사상(事象)들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Tevekkeltu alallah”라고 말하며, 여행객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온갖) 사건의 산악 같은 파도들 속에서 안전하게 영위한다. 자신의 무거운 짐들을 전능하신 분의 수중에 위탁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여행한 후 중간계에 이르러 휴식을 취한다. 그 후 영복(永福)을 얻기 위해 천국으로 날아 갈 수도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의 짐이 너무도 무거워, 하늘을 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자신을 끝없는 추락으로 이끌 것이다.

말하자면, 신앙은 유일성tevhid에 대한 확신을, 유일성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teslim을, 복종은 하나님께의 의탁tevekkul을 필요로 하며, 의탁은 필연적으로 현세와 내세의 행복으로 이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의탁이 인과esbab因果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인과는 ‘역장(力場)을 가리는 막의 정체를 알고자 숙고하는 것이며, 인과론으로 설명을 시도하는 것은, 기도(두와)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으로, 원인을 오로지 전능의 존재로부터 구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들을 그 분에게서 얻은 것이자, 그 분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의탁을 하거나, 하지 않는 자들의 예증은 아래와 이야기와 같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허리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커다란 배에 표 한 장씩을 구하여 승선하게 되었다. 한 사람은 배에 오르자마자 무거운 짐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앉아 주위를 구경한다. 다른 한 사람은 거만하고 무지하여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지 그래!” 라고 그에게 누군가가 말하자, 그가 답하길 “아니, 내려놓을 수 없지. 내려놓는다면 누군가 가져갈지도 모르고. 이썸이야 머리와 허리에 진 체로 지킬 수 있을 만큼 나는 강하니까.”

그러자 다시 누군가가 말한다. “자네와 우리가 승선하고 있는 이 황제의 배가 자네보다 더 강하니 자네 자신보다 더 잘 (자네의 짐을) 보호하지 않겠나! 무거운 짐으로 머리가 빙 돌아 자네는 짐과 함께 바다에 떨어져 버릴지 누가 알겠는가! 더구나 자네는 서서히 힘을 잃게 될 걸세.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자네의 짐들은 무거워 질 것이고, 자네의 굵은 허리와 그 가물가물한 머리는 더 이상 자네의 짐들을 지탱하지 못할 걸세. 선장 또한 자네의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미친 사람 보게나’ 하며 자네를 배에서 쫓아낼지도 모르고. 아니면 ‘감사하기는커녕 본인의 배를 비웃고 있는 저 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라고 명할지도 모른다네. 더구나 지금 자네는 우리 모두의 면전에서 자네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 아는가? 주의 깊게 본다면, 자네는 자네의 위선으로 나약함을, 자네의 자존심으로 무능을, 자기 기만으로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네. 결국 자네 자신을 웃음거리로밖에 만들어 놓고 있지나 않은지.

보게나, 모든 이들이 자네를 비웃고 있지 않은가?” 라는 말을 듣자, 이윽고 그도 제 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말하길;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은총을 베푸시길. 어려움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내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에 자네에게 감사하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사람이여! 당신 또한 저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어 그 분께 의탁할지니, 온 우주의 (비천한) 구걸자가 되거나. 온갖 사건들에 떨거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바보로 만들거나, 내세에서 비참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감옥과도 같은 이 세계의 압력에서 당신 스스로를 구원토록 하자.

네 번째 요점

신앙은 인간을 인간이게 한다. 인간을 황제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하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신앙과 기도이다. 반면, 불신은 인간을 실로 비참한 짐승으로 만든다.

이를 증거하는 수천의 예증들 중에, 인간과 동물의 출생에 나타난 차이점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다. 인간성은, 신앙으로 인간성이 이루어짐을, 인간과 동물의 출생에 담긴 차이점을 통해 보여준다. 왜냐하면, 동물은, 마치 이미 다른 세계에서 완전히 준비되기라도 한 듯, 모든 면에서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즉 보내어 지기

때문이다. 2 시간 혹은 2주, 혹은 2달만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삶의 조건들과, 세상과의 상호관계들, 그리고 생존의 법칙들을 배우며,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이 20년에 걸쳐 배우게 되는 생존 법칙들과 자신만의 고유의 기능을 제비나 벌과 같은 동물들은 단 20일만에 획득한다, 아니, 그렇게 하도록 인도 받는다.

이들테면, 동물들의 기본적인 의무는, 배움으로서 수행되거나, 지식을 얻어 발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며,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어 도움을 구하거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종류의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의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능력의 한도에 따라 이미 완성된 것이고 (그렇게) 행위 하는 것, 즉 경배의 행위인 것이다.

인간으로 말하자면, 생의 법칙들에 무지하여 모든 것을 배워야 할 필요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심지어 20년 동안에도 삶의 법칙들을 완전히 배우지 못하기도 하며, 오히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할 필요를 지닌 무능하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보내어져, 생후 1, 2년 동안 단지 일어서는 법만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15세가 되어야 비로소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인류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만 자신에게 유용한 것들을 얻고 해로운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은, 인간 본연의 의무가 배움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이며, 기도로서 경배하는 것임을 뜻한다. 즉, “누구의 자비로 나는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누구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며, 누구의 관용이 있어 이렇게도 시기 적절하게

필수적 영양분을 흡수하며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자문의 답을) 아는 것이다; 천 여 가지 중에서 단 하나 조차도 손에 얻을 수 없는 일용 필수품들에 관해 부여주Kadiru-l Hacat(附與主)에게 자신의 부족하고 가난한 혀로 구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즉, 가난하고 부족한 날개로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경배라는 지고의 위치로 날아가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은 이 세상에 지식ilim과 기도dua를 통해 자아를 완성하기 위해 온 것이다. 인간의 본능과 능력 그 전부는 지식에 달려 있다. 모든 참된 지식의 기반, 근원, 빛nur과 혼ruh은 마리페툴라marifetullah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은 이만 놀 빌라iman-i billah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인간은 실로 무능하여 이루 해야될 수 없는 고난과 적들, 동시에 무한히 가난하여 끝간데 없는 일용과 욕구에 필연적으로 노출된 존재임을 상기하거니와, 인간 본연의 의무는, 믿음 후, 기도이다. 기도로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간이 되는 경배이다.

한 유아가 있어, 자신의 손이 미치지 않는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울기도 하고 (말로써)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행동이나 말로써 기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이처럼, 인간은, 모든 생물계 내에서 나약하고 가난하며 무능한 유아와 같다. (그럼으로) 자비이시고 자애이신 분Rahmanu'r-Rahim의 성정dergah(聖政)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또는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 드리기 위해, 스스로의 나약과 무능함으로 울거나,

가난과 부족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파리 한 마리로 과장을 부리는 어리석은 아이처럼, “내 힘은, 다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 아니 그 (파리)보다 수 천 배나 더 강한 것들도 (내 밑에)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것들을) 내 자신에 복종케 한다” 라고 말하며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불신에 빠짐은, 인간 본연의 본능에 위반되는 것임과 동시에, 가혹하기 이를 데 없는 벌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

다섯 번째 요점

신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연적 수단으로서 기도를 필요로 하며, 인간의 본능 또한 이(기도)를 진실로 원하는 것처럼, 전능이신 분Cenab-i Hak께서도, “너희의 기도가 없다면 너희에게 그 무슨 중요성이 있으리뇨?” 라는 의미로, *말하라, 나의 주님께서는 너희의 기도가 없다면 너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 (성 코란 25: 77) 라고 이르시며,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성 코란 40: 60)라고 명하신다.

만약 여러분이 묻기를: “저희가 늘 기도하나니, 그러나 저희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나이다. 그럼에도 코란의 구절은 보편적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으리라 말합니다.”

그 답은: 응답을 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모든 기도에 대해 응답은 주어진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정확히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전능이신 분의 지혜에 달려있다 하겠다.

예를 들면, 한 소년이 너무 아파 의사를 찾아가서 외친다. “의사 선생님. 저 좀 봐 주세요!”

그러면, 의사는, “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응답한다.

소년이, “저기 놓여있는 약만 제게 주시면 되요!”라고 말하면,

의사는 그 소년이 원하는 바로 그 약을 줄 수도, 그보다 더 괜찮거나 소년을 위해 더 도움이 되는 약을 조제해줄 수도 있다. 또는 소년이 원하는 약이 소년에게 해롭다는 판단에서 아무런 약도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능이신 분 또한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마련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당신 종들의 외로움과 고독의 공포를 친근함과 따뜻함으로 바꾸신다. 그러나, 그 분은 응답을 하시되, 인간의 욕망과 중요성에 따라 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예지에 따라 하시되, 원하는 것 그대로를 이루게 하실 수도, 더 나은 것을 주실 수도, 아니면 아무 것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기도dua는 경배ubudiyet이다. 경배란, 내세의 열매semarati uhreviye이다. 현세는 일련의 기도와 경배의 시간으로서 그 의도를 갖는다. 이 의도들은 결코 (그 자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한 예배와 기도는 경배의 한 형태이다. 가뭄은 이 경배들이 행해질 시간으로서 의도를 갖는다. 그러나 이 기도와 경배 자체는 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단지 이 의도(기우제의 형태)로 (기도와 경배가) 행해진다면, 그 기도와 경배는 진실하지 않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석양은 저녁 예배의 시간이며, 일식과 월식은 ‘쿠스프kusuuf와 후스프husuf’ (역주: 일식과 월식 때 드리는 예배)로 알려진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다. 즉, 밤과 낮으로서 표식이 되는 빛을 가림으로서 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바, 전능이신 분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것을 권하신다. 그러나, 이 예배는, (해나 달이) 다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나,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계산하여 정해진 해와 달의 식에 대한 발견을 위해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뭄은 기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해로운 것들로부터 고통과 재난의 시기가 오면, 이는 자신의 무능을 자각할 때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의미하고, 기도와 강구를 통하여 전능하신 분의 성정에 피신처를 구할 시기가 왔음을 뜻한다. 만약, 많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나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고 말해선 안 된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해야 한다. 전능이신 분이 당신의 자비와 관용으로 그 난관을 제거하여 주신다면, 빛 위에 빛이 있나니nurun ala nur, 비로소 기도의 시간이 끝나며, (기도를 통한

장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말하자면, 기도는 경배의 비밀인 것이다. 경배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봉사livechillah이어야 한다. 그 분에 대한 경배와 봉사는 그 분을 위해 신실하고 진지하여야 한다. 자신의 가난과 부족을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 그 분께 의탁하여야 하며, 성결聖結에 불평해서는 안 된다. 결정은 그 분의 뜻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그 분의 지혜에 의존하여야 하며, 그 분의 자비를 불평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도, 성 코란의 말씀들로 결정된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제 각기 자신에게만 한정된 찬미tesbih와 자신에게만 고유한 경배ibadet와, 자신만의 제의secde를 행하는 것처럼, 온 세상으로부터 성정(聖庭)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다:

이에는 내성적 언어istidat lisani로 행해지는 기도가 있는바, 이는 동식물의 기도와 같아, (그 자신의) 내성적 언어로 권능의 부여주Feyyaz-i Mutlak로부터 (자신만의) 형상을 구하며, (이 형상으로) 그 분의 이름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밝히길 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론, 본능적 욕구의 언어ihtiyac-i fitri로 이루어진 기도가 있는바, 이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으나 생존에는 필수 불가결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기도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각자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절대 관용과 권능이신 분Cevad-i Mutlak으로부터 구한다.

또는, 절박한 언어lisan-i izzirar로 행하는 기도도

있어, 곤경에 빠진 개별적 영적 존재들은, 안전한 피신처를 위해 (긴급한) 기도를 드리며, 보이지 않는 보호자에게 의탁한다. 이는 곧 자비로 충만하신 분께 향하는 것이다.

상기 세 종류의 기도는, 어떤 특정한 방해 요소들이 없다면, 언제나 이루어지는 기도들이다.

네 번째 종류의 기도는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서 우리들이 행하는 기도이다. 이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동과 상황fiili ve hali의 기도, 다른 하나는 마음과 말kalbi ve kali로 행하는 기도이다.

예를 들면, 인과론에 의지하는 것은 일종의 행동적 기도이다. 원인들을 모으는 것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황의 언어lisan-i hal로서 전능이신 분으로부터 결과를 구하기 위하여 받아들일 만한 상황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땅을 경작하는 것은 은혜로 가득 찬 보고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이런 행동의 기도들은 절대 관용이신 분의 이름과 속성들로 향하게 하는 것이어서, 대다수의 경우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말로서, 마음으로 행하는 기도이다. 스스로는 구할 수 없는 특정한 요구들을 원하는 것이다.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장 지고한 목적, 가장 달콤한 열매는 다음과 같다; “기도를 행하는 자는 알 것이니, 어떤 존재가 있어, 그의 마음의 욕구들을 익히 알고 계시고, 그 분의 성수(聖手)가 모든 것에 뻗쳐 있으며, 그의 욕망을 이루어지게도 하시고, 그의

부족함을 동정하여, 그의 가난에 답하시니라.”

이러하므로,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이여! 기도와 같이 자비로 가득 한 보고hazine-i rahmet를 열 수 있는 열쇠와 결코 소모되지 않는 힘과 이어질 수 있는 끈을 놓지 말자! (그 끈을) 굳건히 잡고 가장 고결한 인간성에 도달하라, 황제처럼 온 세상의 기도들을 자신의 기도에 포함시키며, 만유를 대변하는 대리인의 기도처럼 오직 당신에게만 도움을 구하나다 (성 코란 1: 5) 라고 말하라,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 되도록 하라.

제 2장

이 장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관한
다섯 개의 요점으로
루어져 있다.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형상ahsen-i takvim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에게만 포괄적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장 미천한 지위esfel-i safili에서 저 지고한 지위alayi illiyyi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태양에 이르기까지 이미 마련된 상황과 등급과 경지들 내에서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할 수도 (더 낮은 곳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시험의 장에 보내어 졌으며, 끝없는 상승과 하강이라는 두 길을 열어 둔 성력(聖力)의 기적으로서, 창조의 결과로서, 성예(聖藝)의 예술로서 인간은 이 세계에 보내어 졌다. 이처럼 경외롭기 그지없는 인간의 상승과 하강의 신비를 다섯 가지의 요점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요점

우주의 대부분의 요소들은 인간에게 있어 필수적이어서, 인간은 그것들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인간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들은 지천(地天)에 가득하고, 그 자신의 욕구 또한 무한하다. 한 송이의 꽃을 원하는 것처럼 봄이라는 계절 전체 또한 원하기도 한다. 정원을 소유하고픈 욕망에 사로잡히는 가 하면, 천국을 갈망하기도 한다. 지기(知己)를 만나기를 열망하듯, 아름다움이신 영광의 주Cemil-i Zulcelali를 만나고자 강구한다. 다른 공간의 애인(愛人)을 방문하기 위해 그의 문을 두드리듯, 영계(靈界)(역주-중간계berzah를 의미한다.)를 떠돌고 있는 그의 친우들 중 구십구 퍼센트 이상을 만나, 그들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저 거대한

세계의 문을 닫고 내세의 문을 활짝 열, 현세를 닫고 내세를 그 대신에 세울 절대 권능이신 분의 성정聖庭으로 피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자신)을 위한 경배의 진실하고 유일한 대상은, 그분의 성수가 온 피조물 위에 걸쳐 있고, 그 분에게만 만물의 보고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공간을 넘어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그 어떤 결점이나 실수의 개념조차도 없는, 영광의 권능이신 분Kadir-i Zulcelal,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동정의 주Rahim-i Zulcemal, 모든 지혜로 완전하신 분Hakim-i Zulkemal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헤아릴 수 없는 권능과 모든 신비를 담고있는 지혜의 소유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야말로 (인간의)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여! 만약 당신이 한가지로 그분의 종이 된다면, 모든 피조물의 위에 지위 하리라. 그러나 만약 그 분을 향한 경배를 외면한다면, 무능한 피조물들의 비천한 종이 되리라. 당신 자신의 자아와 힘에 의지한 채, 의탁과 기도를 외면하고, 자만에 빠지게 된다면, 이 때는 선과 창조의 측면에서 개미와 벌보다 더 낮은 지위에 떨어지고, 거미나 파리보다도 나약한 존재가 되리라. 악과 파괴의 측면에서 보자면, 산악 보다 더 무겁고, 역병보다 더 해로운 존재가 되리라.

인간이여! 당신에게는 두 가지 면面이 있다; 창조와 존재, 선, 긍정과 능동의 면이 그 하나이며, 파괴와 무존無存, 악, 부정과 피동의 측면이 그 반대 쪽 면이다.

전자의 관점에서 당신은 벌과 제비보다도 낮고, 거미와 파리보다도 나약하다. 반면에, 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신은 산과 대지와 하늘을 능가한다. 이들이 (수행)하지 못하여 외면하였던 집을 당신은 들 수 있으며, 그들 보다 더 넓고 큰 범위를 획득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창조와 선을 행할 때, 당신 자신의 힘이 미치는 범위에서까지만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당신이 악과 파괴를 행할 때는, 그 악은 전염하고, 파괴는 번지게 되기 때문이다.

불신을 예로 들면, 그것은 악이자 파괴이며, 신뢰의 결여를 일컬음이다. 그런데 단 하나의 불신조차 만유에 대한 모독이자, 신성 이름들 *esma-i Illahiye*에 대한 무시 그리고 인간성 전체에 대한 경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저만의 지고한 지위와 중요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은 주의 서신 *mektubat-i Rabbaniyeh*이자, 찬양 받으시는 분의 거울 *meraya-yi Subhaniye*이며, 신성 사절단 *memurin-i Illahiye*이기 때문이다. 불신은, 이들의 (신성의) 거울로서의, 의무 수행자로서의, 의미를 가진 자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는 지위로, 우연의 장난감으로서 강등시키며; 죽음과 결별이라는 파괴를 통하여 빠르게 변질되고 바뀌는 한시적인 물질의 세계, 무의미한 세계로 인도하고; 삼라만상의 거울을 통해 보여지는 그 분의 아름다운 이름들과 속성들을 부정함으로서 나타난다. 또한, 신의 아름다운 이름들을 노래하기 위해 한 점 흠없이 작곡된 지혜로 가득한 송시로서, 장차 영목(永木)으로 자라 날 모든 자질을 갖춘 성력(聖力)의 기적으로서 탄생한 한 알의 씨앗과도 같고, 천지와 산악들을 물론 나아가 모든 천사들 보다 지고하며,

하나님의 지상의 대리자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은 인간을, 가장 비루한 하루살이보다도 더 나약하고, 무능하며 궁핍한 존재로 만든다.

요약하자면, 악의 명령에 노출되어있는 영혼neps-i emmare은, 악과 파괴의 면에서 무한한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선과 창조의 면에서 본다면 이 영혼의 힘은 참으로 부분적이며 미약하기만 하다. 이를테면, 가옥은 하루만에 파괴될 수 있는 반면, 새로 건축하는 데는 백일이 걸려도 모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만약 이 영혼이 자아를 벗어 던지고 신의 힘에 의지해 그로부터 선함과 존속을 구한다면, 그리고 자아에 의지한 악과 파괴를 포기하고 회개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이 때는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리라* (성 코란 25: 70) 라는 말씀의 비밀을 증거 하는 것이 된다. (이 때의) 악을 향한 끝없는 욕망은, 선을 위한 무한한 힘으로 바뀌게 되며,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얻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단한 사람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용과 은혜를 불지니; 하나의 악행을 천 개의 악행으로 기록하고, 하나의 선행 또는 전혀 선행으로서 기록하지 못함이 (당연하고 공정한) 정의adalet일 때조차도, 하나의 악행을 하나로, 하나의 선행은 열, 또는 70, 또는 700, 때론 7000으로 그 분은 기록하신다. 상기의 요점에서 이해해야 만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짐은 행위에 대한 벌이요, 정의인 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완전한 관용이라.

두 번째 요점

인간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다. 하나는 자아의 면에서 현세를 보고, 다른 하나는 경배의 면으로서 영생을 바라본다.

전자의 면에서 인간은 참으로 가없는 피조물이거니와, (그의) 근원적 능력은, 한 울의 머리카락처럼 부분적이기만 자유 의지; 나약한 소유능력; 불꽃같은 삶; 그리고 덧없고 찰나 같은 수명; 눈 깜짝할 사이에 부패되는 작디작은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삼라만상의 위계 그 전역에 걸쳐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 중에 지극히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다.

후자의 면에서, 특히 인간을 경배로 향하게 하는 인간 자신의 무능과 빈곤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은 깊고도 넓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창조주Fatir-i Hakim께서 인간의 영적 본능에 어찌할 수 없는 무능과 끝이 없는 가난을 불어 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무한한 힘과 권능의 존재Kadir-i Rahim이자 끝없는 부를 소유하신 분인 동시에 자비이신 존재Ganiyy-i Kerim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속성들을 거울처럼 반영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

실로, 인간은 한 알의 씨앗과도 같다. 신의 권능으로 이 씨앗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영적 기능을 가지며, 신의 섭리로서 하나같이 완벽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내장되어, 저 땅 아래에서 발아한 후 그 비좁은 세계에서 대기의 세계로 빠져나와, 창조주에게 그 자신 본능의 언어istidat

lisani로 하나의 나무로 자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하여, 저만의 완전성을 획득한다. 만약 이 씨앗이, (자신에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기능들을 지하의 어떤 해로운 물질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 비좁은 곳에서, 극히 짧은 기간에, 무익하기 만한 숨을 토하며 이윽고는 썩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저 씨앗이, 자신의 영적 기능을, 씨앗을 창조하고 피게 한 존재(역주: 알라를 지칭하며, 코란 6장 95절의 말씀은 씨앗을 창조하고 퍼트린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고 있다.)의 창생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대로 사용한다면, 저 비좁은 세계에서 빠져 나와, 커다란 과실수로 자람으로서, 그 자신의 완성되지 않은 부분적 실존과 정신적 영은 저 광활한 우주적 실존을 담은 형상으로 승화될 것이다.

바로 이 씨앗처럼, 인간의 본능에는, 신의 권능으로 중대한 기능과 그 분의 섭리로 가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있다. 만약 인간이 이 좁디좁은 현세에만 한정된 세속적 기쁨을 누리려는 영적 욕망에만 집착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들을 허비한다면, 저 썩어 부패되는 씨앗과도 같이 제한된 공간과 짧은 생애를 통해 맛닥뜨리는 난관의 와중에 썩어 부식되고 말 것이며, 나아가 이 책임을 자신의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영혼에만 남긴 채, 이 세상을 등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인간이, 내적 본능의 씨앗을 이슬람이라는 물과 신앙의 빛으로, 경배라는 토양에서 양육시키고, 코란의 계율을 본보기로 자신의 영적 기능들을 그 본연의 진실한 목적에 사용한다면, 인간에 내재된 영적 기능들은 이

유계alem-i misal(類界)와 영계에서 봉오리와 가지를 트고, 내세와 천국에서는 끝없는 영광과 은혜를 찬미할 영생의 나무와 영원한 진리를 담은 기능들의 씨앗이 될 것이고, 이 우주라는 나무의 은혜와 빛을 머금은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진정한 성장이란, 인간에게 주어진 영과 육, 마음, 지성, 심지어는 상상력이나 다른 능력들을 영생의 방향으로 돌려서, 자신만의 고유한 의무를 경배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도 받지 못한 자들ehl-i dalalet이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현세의 모든 세세한 구석까지 이르러, 온갖 잡다한 향락과 비천한 유희에 빠져들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세세한 기능들과 마음, 그리고 지성을, 부패된 영혼nefs-i emmare에 종속시켜 그에게 도움을 준다면, 이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이라 할 것이다.

이 진리를, 한 환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예증으로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어느 커다란 도시에 들어서고 있다. 들어서 보니, 이 도시에는 거대한 궁들이 있다. 그 궁들 중 몇몇의 대문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명 깊은 연극이 공연되고 있기라도 한 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었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매혹을 풍기고 있었다. 주의를 가지고 살펴보니, 그 궁의 주인이 궁 밖으로 나와 강아지들과 놀고, (그들이) 놀도록 도와주고 있다. 여성들은 이국의 젊은이들과 정겨운 담화에 빠져 있고, 꽃다운 처녀들 또한 아이들의 놀이를 조율하고 있다. 문지기들은 그들의 질서를 맡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바로 이 때 내가 알아차린 것은, 저

거대한 궁전의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완성되지 않은 허술함으로 가득하였으며,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있어, (마치 이것들을 눈가림할 요량이기라도 한 듯) 문 앞에 이런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후, 이 문을 지나쳐 또 다른 커다란 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문은, 충직하게 생긴 경비견이 엎드려 있고, 긴장한 체격의 궁지기가 과묵하게 서 있는, 평이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왜 다른 문들은 저렇고, 이 문은 이런가?”라는 의문에 사로잡혔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궁내로 들어섰을 때, 내가 마주하게 된 것은 매우 활기차고 명랑한 분위기였다. 각 층마다 각각 나름의 의무로 궁내의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1층에 있는 사람들은 감독 관찰하고 있었고, 2층의 젊은 여성들은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층의 여성들은 수 판 위에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었다. 가장 높은 층의 궁주는, 국왕과 새로운 소식들을 주고받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고 자신의 성취와 발전을 위해, 궁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관계로 제재 당하지 않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 궁을 나와, 주위를 보니; 이 도시의 궁들 모두는 위 두 종류의 궁들 중 하나에 속하였다. (이를 의아해 하며)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이 답하기를; “문은 아름다우나, 안이 텅 빈 궁은 불신에 있어 가장 앞장 선 자들의 것이요. 인도 받지 않은 자들의 거주지입니다. 그 외의 궁전들은 저 유명한 믿음의 선각자들의 것들이랍니다.”

그런 후, 모퉁이에 있는 한 궁과 마주쳤다. 그 문 위에 “싸이드Said” 라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의아하기 이를 데 없어, 더 자세히 쳐다보니, 마치 내 자신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이 나에게 다가왔다. 헛소리를 해대며, 이윽고 깨어나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제 잠시, 이 환상을 당신들께 해석하고자 하니, 단지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만을 하나님께 기도드릴뿐이다.

저 도시는 인간의 사회적 삶이자 인류 문명의 터전이다. 저 궁들 각각은 인간 개개인에 해당한다. 궁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눈, 귀, 심장, 마음, 정신, 지성 등의 신비한 기능들과 자아, 분노와 색정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인간들 개개인에게 있는 (신비한) 기능들 각각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경배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저만의 맛과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 영혼, 변덕, 색정, 분노 등은 궁지기이자 경비견에 해당된다. 이러하니, 저 신비한 기능들을 자아와 분노나 색정 등의 감정에 종속시켜 그들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게 하는 것은, 가히 퇴락이라 할 것이니, 결코 성장이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남은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둔다.

세 번째 요점

인간은, 행위와 행동 그리고 물리적 노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나약한 동물이요, 가난한 피조물일 뿐이다. 이 측면에서 인간의 소비 범위와 소유 능력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신의 손이 미치는 것에만 한정된다. 심지어, 집안의 가축들조차 주인 된 인간들의 나약함과 무능과 게으름을 본받아, 같은 종의 야생동물과 비교하면 참으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집안의 염소와 소등과 야생의 염소와 소등).

그러나 그러한 인간도, 복종과 수용, 기도와 장구의 면에서 보자면, 이 잠시 머무는 세계에서 축복 받은 여행객이다. 그토록 은혜 받은 여행객이어서, 끝없는 자비의 보고寶庫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으며,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다양하고 독특한 피조물들과 봉사물들이 그(인간)에게 종속된다. 이 여행객의 유희와 오락과 이로움을 위해 준비된 장소 또한 광활하기 이를 데 없어, 반경만 하여도, 인간의 시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상회해, 그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곳의 끝까지 갈 만큼 길고도 넓다.

그럼으로, 만약 인간이 자신의 자아에만 의존하여, 세속적 삶을 자신의 목표로 설정하고, 생계라는 투쟁의 삶에서 일시적이고 특정한 기쁨을 구하고자 노력한다면, 그는 참으로 좁디좁은 반경 안에 묶여, 삶을 허비하고 말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기관들과 신체적 조직과 기능들은 부활의 날hasir에 그에 반하여 증언하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여행객임을 인식하고, 자신을 객으로 맞이한 관용으로
충만한 존재Zat-i Kerim의 허가의 범위에서 생을
영위한다면, 넓디넓은 생의 반경에서 긴 여정을 영생을
위해 보내게 되며, 이후 편안한 휴식을 맞이하고, 나아가
지고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한편으론, 그에게
주어진 영과 육의 기관들과 기능들이 그 자신과 함께
행복한 여행을 하였기에 그를 위하여 내세에서 바른
증언을 할 것이다.

단언컨대, 인간에게 주어진 경이롭기 그지없는 모든
기관과 기능들은 덧없는 이 현세의 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 중요한 영생hayat-i bakiye을 위해
주어졌음이다. 왜냐하면, 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기관과 기능들에 있어서 동물의 그것들보다 100배나 더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현세적이고 동물적인
삶을 놓고 본다면, 인간은 동물보다 수백 배나 더
뒤떨어져 있다할 것이니, 이를테면 인간의 기쁨들은 그
매순간마다 수천의 고통들을 감수해야 얻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과거 기억의 쓰라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쁨과 함께 얻은 아픔들은, 기쁨의 맛을
잃게 하며, 기쁨 후에 고통을 남긴다. 반면 동물들은 이와
같지 않아, 그 어떤 고통을 동반함이 없이 기쁨을 얻으며,
수고 없이 만족을 얻는다. 과거의 쓰라림이 그에게
고통을 주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는다. 동물들은 그저 평화롭게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영위하며, 자신들의 창조주에게 늘 감사해 한다.

즉, 가장 아름다운 형상ahsen-i takvim으로 창조된
인간이, 만약 이 현세적 삶만을 생각하게 된다면, 애초에

동물들 보다 높은 지위로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파리보다도 수 백 배나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를 위한 예로서,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이 장의 주제와 밀접한 이유로 여기서 그 예증을 다시 반복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한 하인에게 열 개의 금전을 주면서, “특정한 천으로 된 옷 한 벌을 재단해 오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다른 하인에게는 천 개의 금전을 주고, 어떤 명령이 적힌 쪽지를 그의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시장으로 보낸다.

첫 번째 하인은 열 개의 금전으로 특정한 천으로 만든 완벽한 옷을 구한다. 두 번째 하인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줄 모르는 아둔함으로, 첫 번째 하인의 행동만을 지켜본 후, 그러나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쪽지에 전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한 옷가게로 가서 천 개의 금전을 주고 옷 한 벌을 원했다. 부도덕한 상인 또한 질이 나쁜 천으로 옷 한 벌을 지어 그에게 주었다. 이 미련한 하인이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오자마자 말할 것도 없이 질책과 무거운 벌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위 예에서, 참으로 아둔한 사람도 알 수 있듯, 두 번째 하인에게 준 천 개의 금전은 옷 한 벌만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어떤 중요한 사업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기능들과 신체적 기관들 그 각각은 동물들의 그것들보다도 수 백 배는 더 뛰어나게 고안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름다움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의 눈; 모든 종류의 음식의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인간의 미각; 진리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인간의 이성; 완전함을 동경하는 인간의 마음처럼 영적 기능과 신체 기관들에 반하여 동물들의 기관, 기능들은 어떠한가? 고작해야 한 두 단계 진화된 지극히 단순한 것들에 불과하지 않는가? 간단히 말하면, 동물들의 기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들만을 수행한다. 비록 동물의 어떤 종들에게 더러 진화된 기관들을 보기도 하지만 이 진화 또한 부분적이다.

인간이 기능적으로 풍부하게 창조된 것은 다음과 같은 비밀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과 감정은 그에 맞게 고도로 발달되었고 확장되었으며, 다양한 욕구들로 인하여 수많은 감정들이 새로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감각 또한 크게 바뀌었고, 인간만의 본능적인 통찰력 때문에, 그의 욕망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본연의 수많은 의무들 때문에 그의 기관들과 기능들은 크게 확장되었다. 또한 인간은 선천적으로 모든 종류의 경배에 적당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완성의 씨앗들을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인간의 풍부한 기관들과 이들의 기능은 단지 이 한시적이기 만한 세속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근본 의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의도로 향하여 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들을 보면서, 자신의 무능과 가난과 결점들을 경배의 형태로 드러내는 것; 보편적 시각으로

삼라만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tesbihat를 목격하여 증언하는 것; 자애이신 분의 은총을 보며 감사 드리는 것; 피조물들에게서 창조주의 경이를 살피며, 이를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숙고하는 것이다.

현세에만 집착하여 현세의 삶에 목 맨, 가장 아름다운 형상의 신비에 무지한 인간이여! 이 현세적 삶의 진리를 한 환영을 통해 과거의 사이드로서 깨달아, 새로운 사이드로 바꾼 아래의 그 환영의 예증을 듣거라;

보니, 나는 한 여행객이었다. 긴 여정으로 길에 나선, (아니 길에 나섰다가 보다는) 나는 보내진 것이었다. 나의 주인된 자는 나에게 할당된 육십 개의 금전을 나누어서 나에게 보내주고 있었다. 이 돈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던 어느 날 온갖 종류의 오락 기구로 가득 찬 한 여관에 당도하였다. 여관에 묵은 첫날밤에만 도박과 향락으로 나는 열 개의 금전을 탕진하여서, 다음 날 아침에 내 수중에는 단 한 개의 금전도 남아 있지 않았다. 사업 한 번하지 못했으며, 다음 목적지에서 팔 물건 또한 살수도 없었다. (도박에 날린 돈이) 나에게 남긴 것은 죄심과 고통이었으며, 향락은 상처와 슬픔만을 남겼다.

그러한 낙망한 상태에 빠져있었을 때, 홀연히 한 사람이 나타나 내게 말하였다;

“수중의 모든 돈을 (도박과 향락으로) 탕진하다니, 자네는 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며, 나아가 다음 목적지에도 텅텅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이네. 그러나 자네에게 일말의 양심과 의식이 있다면, 회개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네, 이 후에는, 자네에게 보내 질 남은 열 다섯 개의 금전중 반을 다른 곳에 허비하지 말고 자네 수중에 남겨두게나. (그 돈으로) 다음 목적지에서

자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시게나.”

보니, 나의 영혼은 (그 충고에) 마뜩치 아니한다. 그러자 그는 “3분의 1”이라고 말(제안)한다. 그것에도 내 영혼은 순응하지 않는다. (그런 나를 보고) 그는 ‘4분의 1’을 제안한다. 보니, 나의 영혼은 으레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남자는 크게 화난 얼굴로 돌아서, 떠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보니, 나는 한 터널 안에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타기라도 한 듯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한 열차 안에 있다. 나는 두려움에 기겁하고 있었으나, 이 절박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어떠한 방도도 나에게서는 없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하게도, 양 차장을 통해 느닷없이 아름답기 그지없는 꽃들과 달디달게 보이는 과일들이 나타났다. 나는 마치 백치처럼 그것들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그 꽃들을 꺾기 위해, 그 열매들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있었다. 그러나 그 꽃들과 열매들은 가시로 뒤덮어져 있어서 이윽고 그것들을 잡았을 때 내 손은 수많은 가시와 피로 얼룩져 버렸으며, 열차가 움직임에 따라 가없는 내 손은 갈기갈기 찢기어 나갔다. 그것들을 얻기 위한 비용은 참으로 비싸기 이를 데 없었다.

이 때 갑자기 차량의 짐꾼이 나타나 내게 말하였다; “다섯 량만 주면, 원하는 만큼 저 꽃들과 열매들을 따 주겠소. 다섯 량을 아끼려다간, 손님의 상처 입은 손 때문에 백 량 이상의 치료비의 손실을 감당해야 할 것이요, 더구나 허가 없이 따다가는 벌금까지 지불해야 한답니다.”

갑작스럽게, 낙망하여 언제나 터널이 끝나려나 하고 얼굴을 돌려 앞을 보았다. 보니, 터널의 출구로 보이는

곳에는 그 대신에 수많은 구덩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열차의 기다란 차량들에서 그 구덩이들로 사람들이 던져지고 있었다. 내 전면에 있는 한 구덩이를 쳐다보았다; 구덩이 양끝에는 두 개의 묘비가 있었다. 의아함에 정색하고 쳐다보니, 그 묘비에는 커다랗게 ‘싸이드’라고 적혀 있었다. 황당하고 놀랍기만 하여, ‘아!’라고 내뱉었다. 그 때 갑자기 저 여관의 문 앞에서 나에게 충고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말하길;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는가?”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는) 남은 힘도 방도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의탁하게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어났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니) 과거의 ‘싸이드’는 간데 없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싸이드’로서의 내 자신을 보았다.

상기의 환상을 -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른 결과를 주시기를 - 한 두 가지 요점을 들어 해석하고자 한다; 남은 부분은 여러분께서 해 주시기를.

저 여행은, 영의 세계 *alem-i ervah*에서, 어머니의 배에서,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걸쳐 무덤으로, 중간계 *berzah*로, 부활로 이어지고, 이윽고 다리 (역주: 씨라트 *Sirat*의 다리를 의미하며, 씨라트의 다리란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건너는 다리를 일컬으며, 그 아래는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를 지나

영원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저 육십 량의 금전은 육십 평생을 뜻하며, 이 환상을 끈 당시의 내 나이는 45살 남짓이었다.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남은 나의 15년의 여생중 반을 내세를 위해 사용키 위하여 성 코란의 한 신실한 제자가 이 환상으로 나를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여관은 나에게 있어서는 이스탄불이었다. 열차는 시간을, 매 년은 열차의 한 칸을 의미한다. 터널로 말하자면, 이 현세이다. 가시로 뒤덮인 꽃과 열매는 미혹의 기쁨과 금지된 유희여서, 그들을 향해 들진하면 그들을 잡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아픔을 일으키고, 그들과 멀어질 때는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피를 흘리게 하며, (그들을 향한 행동으로 인한) 처벌 또한 자초하게 만든다.

열차의 짐꾼은 내게 말하였다; “다섯 량을 주게나. 자네가 원하는 만큼 저것들을 따 주겠네.” 이 말은 인간에게 허용된 것hela들의 범주 내에는 그들을 위한 기쁨과 만족과 유희가 충분히 있음이니, 금지된 것haram에 굳이 다가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남은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둔다.

네 번째 요점

인간은 이 우주에서 유약하고 귀여운 아기와도 같다. 그 자신의 약함에는 강함이 있으며, 무능함으로 가히 능함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나약함과 무능이라는 힘에 의해 삼라만상이 그에게 종속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인지하여 말kalen과 상황halen과 행위tavren로서 기도를 드린다면,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여 이로서 도움을 구한다면, 한편으론 자신의 나약한 정체를 깨달아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한편으론 스스로에게 주어진 본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욕망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어떤 때에는 상황lisan-i hal의 기도로 얻어진 요구를, 자신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양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아리의 나약함은 암탉으로 하여금 사자를 공격케 하고, 새로 태어난 사자의 새끼는, 제 어미의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배를 채운다. 이러하니, ‘약함의 힘’ 속에 숨겨진 자비이신분의 예증을 살피라.

이와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울거나, 떼쓰거나, 불쌍한 표정을 지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수중에 넣고, 그 만한 힘이 그에게 도움이 되어주니, 이는 (아이의) 요구들 천 가지중 단 한 가지를 얻음에 있어서도 (그 자신의 가진 힘의) 천 배로도 충분하지 않다. 즉, 아이의 나약과 무능은 연민과 보호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 작디작은 아이의 손가락으로 영웅들을 자신에 종속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이가 그러한 연민을 부정하고 자신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면서, 어리석은 자만으로 가득 차,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

라고 말한다면, 참으로 이는 매를 사서 버는 격이라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으니; 인간 또한 창조주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분의 보호를 거부하면서, 불신의 한 형태로, 카룬(Qarun)의 예와 같이 “(이것은) 내가 가진 지혜 덕분에 주어진 것이다” (참조; 성 코란 28: 78, 39: 49)라고 말한다면, 진실로 이는 가혹한 벌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아, 저 (역사를 통해) 목격된 인간의 지배력, 눈부신 발전과 문명의 완성은, 매혹이나, 정복 또는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이며, 그 자신의 무능과 가난으로 인하여 부여되었으며, 그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고양되었고, 그리고 그 자신의 욕구로 인하여 주어진 것들이다. 또한 인간의 지배력의 원인은 그 자신의 힘과 본능적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양하심과 그분의 자비와 지혜의 덕이므로, 비로소 사물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킬 수 있었다. 이러할 지니, 눈 없는 전갈이나 발 없는 뱀 같은 생물에게도 당하여 쓰러질 수 있는 인간에게, 작디작은 벌레에게서 비단을 내어 옷을 입히고, 독이 있는 곤충에게서 꿀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인간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 자신의 나약함의 열매인 자비이시어서 부양하시고 부여하시는 분의 은혜 때문인 것이다.

그럼으로 인간이여! 진리는 이와 같으니; 거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도록 하자. 성정聖庭에서 우리 자신의 나약과 무능을, 도움을 구하는 말로; 온갖 필요로 가득한 우리의 가난을, 기도와 부복의 언어로 밝히고,

우리가 그 분의 종임을 보이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나니 승리는 그분께 의탁하는 자에게 있노라(성 코란 3: 173)라고 말하도록 하자.

동시에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야 하니; “아무 것도 아닌 나에게 대체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이 우주가 저 권능의 존재에 의해 의도적으로 나에게 종속되어야만 하며, 그 존재는 또 왜 나로부터 완전한 감사를 받기를 원한단 말인가?”

왜냐하면, 당신은 영靈과 象으로 보자면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해도, 인간으로서의 당신의 의무와 지위로 말하자면, 당신은 경이로 가득 한 이 우주의 모범적인 관객이자, 지혜로 가득 한 저 삼라만상의 비유적 언어인 동시에, 우주라는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이며, 자신들의 경배를 존중하며 늘 찬미를 드리는 경이로운 피조물들의 감독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할지니, 인간이여! 당신은, 식물의 육과 동물의 영이라는 점으로 보면, 궁핍한 피조물, 나약한 동물이어서, 존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이리 저리 떠밀려 사라져 가리라. 그러나, 신의 사랑으로 빛을 얻은 신앙이라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를 완성하니, 그리하여 당신은 인간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복들 중에서 황제인 것이다; 단편적인 존재들 내에서 당신은 하나의 전부이며; 작음에도 그 안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보잘 것 없는 존재들 내에서 당신의 지위는 그토록 높고, 당신의 영역은 그토록 넓으니, “저의 자애 하신 주께서 저를 위해 세상을 거주지로 삼게 하였으니, 해와 달은 이 세상의 등이요, 붉은 참으로 아름다운 장미, 여름은

은혜의 식탁, 그리고 동물들은 그 분께서 나에게 베푸신 나의 충실한 증복들이며, 온갖 식물들로 나의 거주지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하여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만약 당신의 자아와 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참으로 비천한 존재esfel-i safilin로 전락하리라. 그러나 진리와 코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고의 지위ala-yi illiyyi로 오를 것이니, 우주의 아름다운 한 형상이 되리라.

다섯 번째 요점

인간은 이 세상에 관리인이자 객으로서 보내어졌으며, (그에 따라) 매우 중대한 능력이 주어졌다. 그리고 바로 이 중대한 능력에 걸맞은 중요한 의무들이 부과되었으며, 이 목적과 의무들을 이행시키기 위해, 따듯하고 힘이 되는 격려와 동시에 무시무시한 경고들이 보내졌다. (본인의) 다른 저술들을 통해 이미 상세히 설명한 바 있는 인간의 의무와 경배들의 본질을 이곳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니, 이로써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란 말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이 세계에 보내짐으로서 두 가지 면에서 경배의 의무를 가진다; 하나는 (그 대상이) 부존(不存)하는 상태에서의 경배와 숙고 (역주: 영적인 경배) 이며, (이에 비하여)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의) 앞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형태로서 행하는 경배 (역주: 육적인 경배)와 강구이다.

첫 번째 측면은; 삼라만상을 통해 드러나 있는 주님의

영도(領導)에 대한 복종을 자인하며, (그 분 영도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경외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그런 후, 신성의 이름들이 새겨진 심미적 사물들을 서로 서로의 시각에 반추시켜 교훈을 얻게 함으로서, (이로서, 상대 사물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새겨져 있는 신성의 이름들을) 증거 한다.

그런 후, 제각기 숨겨져 있는 영적 보물들에 해당되는 주의 이름들의 본질을, 공정한 인식의 저울로 그 무게를 가늠하며, 통찰력 있는 마음으로 그 본질의 가치에 확신을 갖는다.

그런 후, 권능의 붓으로 (쓰여진) 서한書翰에 속해 있는 존재 사물들의 페이지들을, 천지에 속한 일들에 (비유하여) 연구함으로서, 그 경외로움에 대해 숙고한다.

그런 후, 존재 사물들의 저 아름답기 그지없는 예술미에 감탄 어린 시각을 견지함으로서, 저들을 있게 한 스스로 아름다움이신 조물주Fatir-i Zulcernal의 지혜를 사랑하며, 저들을 있게 한 스스로 완전하신 창조주Sani-i Zulkemal의 성정으로 나아가, 그 분의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무는; 평안을 얻고 이를 알리는 단계로서, 예술품을 통해서 그 작품을 창작한 예술가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창조주Sani-i Zulcelal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들어내신 경이의 기적들을 통하여 스스로를 알리시기를 원하심이니, 이는 신앙과 지혜를 통해 얻어진다.

그런 후, 자비이신 주Rabb-i Rahim께서 자비의 아름다운 열매들로서 스스로 사랑 받으시고자 하심을 저(인간)가 보니, 저 또한 그 분에 대한 사랑과 경배를

통하여 자신을 그 분에게 사랑 받게 한다.

그런 후, 관용으로 충만하여 양육하시는 분Mun'im Kerim께서 영광 육의 은혜로 저(인간)를 자라게 하심을 저가 깨달으니, 저 또한 그 은혜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다한 말과 상황과 행위의 기도로서 그 분께 감사 드리고 그 분을 찬양한다.

그런 후, 영광과 아름다움이신 분Celil-i Cemil께서, 삼라만상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당신의 위엄과 완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시어, 이를 볼 수 있는 모든 시각에 만족을 주심을 저가 느끼니, 이에 상응하여, 저 또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니Allahu ekber, 그 분께 영광이 있으소서Subhanallah” 라고 찬미하며, 겸손과 사랑과 경외로 그 분 앞에 부복한다.

그런 후, 절대 풍요이신 분Ganiyy-i Mutlak께서 당신의 풍요를 끝없는 부와 보물들로 들어 내어보임을 저가 깨달으니, 이에 대하여 저 또한 그 분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함으로서 그 분의 부를 간청하고 원한다.

그런 후, 영광의 창조주Fatir-i Zulcelal께서 당신의 모든 성예聖藝를 펼쳐 놓으시기라도 하듯 이 지상을 창조하셨음을 저가 보니, 이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의 의지Masaallah’ 라고 자인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Barekallah” 이라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Subhanallah” 이라고 경외驚畏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Allahu ekber” 라고 경이驚異를 표한다.

그런 후, 오로지 한 분이신 주Vahid-i Ehad께서 이 우주라는 궁전에서 모방이 불가능한 당신만의 서명으로, 당신께만 한정된 신장神障으로, 당신께만 속한 칙령으로,

당신께만 있는 옥새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오직 하나” 라는 봉인을 새겨두시고, 그 위에 유일성tevhid의 수를 놓으신다. 온 세상에 일일이 “하나로 존재하심” 이라는 깃발을 세우시며, “당신께서만 주님이심”을 만 천하에 공표하심을 저가 깨달으니. 이에 대하여, 저 또한, 확신과 믿음과 타우히드tevhid와 복종과 고백과 경배로서 답한다.

이러할지니, 인간은 이러한 종류의 경배와 숙고로서 참된 인간이 되며, 가장 아름다운 형상임을 증거 하게 되고, 신앙의 자산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케 되고, 이윽고 그분의 믿을 만한 지상의 대리인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의지의 오용으로 가장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고자 하는 단힌 인간이여! 나 또한 당신처럼 젊어서 만취된 나날들을 보냈으며, 흐릿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지낼만한 세계로서 보았음에도, 젊음의 만취에서 깨어난 중년의 어느 날, 저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내세를 전혀 염두에 주지 않은 저 세계의 진정한 얼굴이 그 얼마나 추한 것인지, 그리고 내세로 돌린 진실한 얼굴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은 바, 열 일곱 번째 말씀의 두 번째 장 84, 85절에 이미 적은 바 있는 두 가지 표식의 진리를 듣고, 당신 또한 깨달을지라.

첫 번째 표식은; 인도 받지 못한 자들Ehl-i dalalet과도 같이, 술에 취해서 보내지 않은, 단지 단힌 천막 사이로 오래 전에 내가 보았던 단힌 세계의 사람들의 진실을 보여준다.

두 번째 표식은; 인도받은 자들Ehl-i hidayet의 그리고 참된 평안의 세계를 가리킨다. 오래 전에 적은

그대로 (아래에) 적는다. (이는) 시의 형식을 빌리고 있으나, 시는 아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다. (성 코란 2:32)

주여 저를 위해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그리고 저의 일이 쉽도록 하여 주소서.
저의 혀에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저의 말을 이해하도록
하여 주소서. (성 코란 20:25-8)

오 하나님! 경이로 가득한 하늘의
태양으로서,
그 빛을 현시하며,
영광의 궤도의 중심을 도는,
아름다움의 구심인
무함만의 하나임과 그의 고운 심성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주여!
(그의 신비가 당신에 있으며,
그의 여행이 당신에게로 향하니; 이로
하여금)
저의 경의를 깊게 하시고,
저의 잘못을 사하시고,
저의 욕심과 슬픔을 없이 하시고,

저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께로 들어주시고,
저의 자아를 능할 힘을 주시고,
저의 가난한 영혼에 속하지 말게 하시고,
저의 오감五感으로 눈멀게 하지 마시고,
숨겨진 모든 진리를 저에게 보여 주소서.
영원하시고 늘 계시는 분이시
Ya Hayyu ya Kayyum!
영원하시고 늘 계시는 분이시여
Ya Hayyu ya Kayyum!
영원하시고 늘 계시는 분이시여
Ya Hayyu ya Kayyum!
저에게 자비를,
저의 동료와 신앙인 들과 코란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소서.
아민,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시여!
만유의 주님이신 당신께 영광이 있으리니,
이 말로서 저희의 기도를 마치나이다.

열 일곱 번째 레마^(*)의
열 다섯 번째 요점

^(*) (역주: 우리말로 ‘섬광(閃光)’을 뜻하며, 리살레이 누르 전집의 한 부분.)

누구든지 원자(티끌)만한 선행을 한 자
그것을 볼 것이요,
누구든지 원자 만한 악행을 한 자
그것을 볼 것이다.
(성 코란 99: 7-8)

위 구절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 보호의 주Hafiz로서의 명칭을 가장 완전한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지혜로 가득한 성서Kur'an-i Hakim의 이 진실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명백한 성서Kitab-i Mubin의 지침에 따라 쓰여진 저 만물의 서를 참조할지니, 그리한다면, 보호하고 보존하는 존재의 위엄과 위 성구의 위대한 진리의 예증을 수많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증

나무와 꽃 그리고 잔디 등의 다양한 식물들의 씨를 한 줌 쥐어보자. 그런 후 그 종과 속이 서로 완전히 다른 손아귀의 씨앗들을 캄캄한 밤에, 단단한 암흑의 토양에 뿌려서 물도록 하자. 그런 후, 평이한 물을 주되, 여기 저기 아무렇게나 마음내키는 데로 뿌리자.

그런 후, 부활의 계절인 봄이 오면 다시 그곳에 가서 보자. 이스라엘 천사처럼 천둥의 천사가, 봄을 맞이하여, 생명의 비를 부르며, 땅 속에 묻혀 있는 씨앗들에게

바람의 영혼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기를 눈여겨볼지니, 서로가 완전히 뒤죽박죽 섞여있고 서로가 유사한 씨앗들이, 보호주라는 이름의 위엄 하에서, 완전한 형상으로, 한 점 결점도 없이, 지혜의 조물주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법칙에 순응한다. 또한, (저 씨앗들의) 너무도 확신에 찬 듯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그들의 이러한 행동의 이면에는 그 어떤 의식, 인식, 의지, 목적, 지식, 완전이나 지혜가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작디작은 씨앗이 무화과 나무로 자라났다. 지혜로 충만한 창조주의 은총이 우리 머리 위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가지를 뺏혀 우리에게 내민다. 이 씨앗과 외관상 닮은 다른 두 알의 씨앗은, (제각기) 해바라기와 팬시가 되어 그 꽃을 피우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꾸미고, 우리를 미소짓게 하고, 스스로를 우리들의 사랑을 받게 한다.

다른 씨앗들은 저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맺고 있다. 그들은 싹이 자라 이윽고 나무가 되었다. 맛, 향, 빛깔이 모두 좋은 탐스런 과일로 우리들의 식욕을 불러 일으켜, 그들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을 초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다. 저 식물의 지위에서 동물의 지위로 스스로를 격상시키고 있음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유추해 보라.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형태로 그 씨앗들은 성장하여, 단 한 줌의 씨앗으로 온갖 나무들과 다양한 꽃들로 뒤덮인 정원에 상당하게 된다. 그 안에는 그 어떤 결점이나 단점도 없어서, (이 씨앗들은) 아래의 코란 절을 증거한다.

다시 한 번 눈을 돌려 보라.

결함을 볼 수 있는가.

(성 코란 67: 3)

저 한 알 한 알의 씨앗은, 보호주라는 이름의 표식과 은총으로, 그 자신 선조의 혈통에서 자신에게 전해진 형질을 아무런 혼란이나 실수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여 보여준다.

이처럼, 저 무한한 (삼라만상이란) 경이를 보호하는 보호의 존재(그 자체)는, 부활과 심판의 날에, 지고한 위엄으로 충만한 (그 분의) 보호의 정체를 드러내 보일 것임에 대한 결정적 증거이다.

이러할지니; 이 무의미하고 일시적이며 스쳐 지나가는 단계들에서 저 정도로 완전무결하게 보호하고 보존하는 확고한 증거를 볼지니,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지대한 중요성을 지닌, 가장 위대한 진리를 품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상의 대리인인 인간의 행동과 행위, 노동 그리고 선과 악의 행동들은, 완벽하게 보존될 것이며, 동시여 그에 따라 계산될 것이다.

어떤 자가 있어, (현세에서의 자신의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그렇지 아니하니) 오히려 인간은 영원으로 운명지어져 있으며, 영원한 기쁨이나 영구한 슬픔을 얻도록 내정되어 있다. 작건 크건 많건 적건 간에,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계산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휴식을

언던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보호와 보존’이 (만물에) 현현함을 깨닫고 위 성구의 진실을 목격한 자에게는 (그에 대한 인식의) 한계나 (알파한) 계산이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목적’이란 대양의 한 방울의 물, 산의 하나 하나의 원자에서의 목적을 의미한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 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성 코란 2: 32)

열 일곱 번째 말씀의 첫 번째 장

세속적 삶의 본질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용의 예증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로 하나님께서는

대지 위의 모든 것을 장식으로 두었을 뿐

이는 그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훌륭한가를 시험코자 함이라.

그분께서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한 흙으로 만들 것이라.

(성 코란 18: 7-8)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희에 불과하니라.

(성 코란 6: 32)

자비이신 창조주Halik-i Rahim이자 관용으로 베푸시는 분Rezzak-i Kerim, 지혜의 조물주Sani-i Hakim께서, 이 세상을, 영과 영적 존재들의 세계를 위해 축제와 환영의 장으로 만드셨나니, 모든 당신의 이름들을 (그 위에) 경이롭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수놓으시고, 대소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영들 그 각각에, 그에 적당하고 저 축제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당신의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이로움을 얻기 적절하게 치장된 감성의 옷을 입히셨으며, 그 각각에 육신을 주시고, 단 한 번 저 현세라는 극장으로 보내신다.

시공의 측면에서 광활하기 그지없는 이 축제를 세기, 년, 계절들과 심지어는 날과 하루의 부분들로 나누시어, 매 세기, 매 년, 매 계절들과 심지어는 각각의 날과 그 부분들이, 영적 피조물들과 식물들을 위해 (그 앞에서) 전시될 수 있는 형태의 숭고한 축제를 만드셨다. 특히, 봄과 여름의 지상에는, 작은 피조물 군집들이 너무도 현란하고 씬 없이 즐기는 축제가 있어, (피조물들 중) 최상류에 포진한 영적 존재들과 천사들과 하늘의 거주민들의 시각을 붙잡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또한, (이 축제는) 지성인들에게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도전할 만한 매혹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신성의 향연과 주님의 축제에서 자비이시고Rahman 생명을 주시는 분Muhyi이란 신성 이름의 위엄이 들어 나 있는 한편, 이에 상응하여, 정복의 주Kahhar이며 죽음을 내리시는 분Mumit이란 이름 또한 결별과 질병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나의 자비가 모든 것을 포용하나니*(성 코란 7: 156)라는 성구에 묘사된

자비의 넓은 범위에 명확히 반한다. 그럼에도, 실제적으로는, 일치되는 몇 가지의 측면이 있다. 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관용의 조물주, 자비의 창조주께서, 각 무리들이 저에게 주어진 행진을 마치고 그 행진을 통해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케 하신 후, (그들에 대한) 자애와 애정으로 그들 대부분을 현세에 대한 반감과 혐오의 감정에 젖어 들게 하시어, 달콤한 휴식에 대한 갈망과 다른 세상으로의 이주에 대한 열망으로 빠져들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저만의 삶의 의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그 때, 그 분께서는 태초의 고향에 대한 강렬한 향수를 그들의 영혼에 일깨우신다.

나아가, 이는 자비이신 분의 끝없는 자애의 범주 밖에 있지 않음이니,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죽음에 이른 사람에게 순교자의 지위를 부여하시며, 희생제의 제물이 된 양에게는, 내세에서 영원한 육신을 갖게 하시어 씨라트Sirat 다리 위에서 자신의 주인을 위해 부락Burak(역주: 천국에서의 탈 것)과도 같은 탈 것의 지위를 보상하신다. 여타의 영적인 존재들과 동물들의 경우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만 한정된 본능적 성무(聖務)를 이행하고 신성 명령에 복종하는 와중에 사망에 이른 자들과 스스로는 감당키 힘든 난관과 고통을 겪은 영적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그들에게 합당한 영적 보상과 그들의 능력에 걸맞은 비물질적 상금 또한 저 무궁무진한 자비의 보고에서의 밖에 있지 않음이다; 이러함으로, 현세와의 결별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이라. 누구도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하나님께서는

제의라 La yalemu'l-gaybe illallah.

그러나, 영적 존재들 중 가장 고귀하며, 저 축제의 향연에서 질과 양적으로 가장 큰 이로움을 얻는 인간으로 말하자면, 현세의 축제에 사로잡혀 집착함에도 불구하고, 현세를 혐오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여보내기 위해, 신의 자비를 통해,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가 주어진다. 자아의 폭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저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이로움을 얻어, 평안한 마음으로 (영원한 세계)로 간다. 여기서, 저 심적 상태로 이끄는 여러 가지 측면들 중, 예증을 들어 그 다섯 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스쳐 지나가는 노년의 계절들로, 현세적이며, 아름다워 매혹적인 것들 위에 소멸과 부패라는 인장과 쓰디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현세를 꺼리고 피하게 하여, 저 한시적인 것fani 대신에 영원한 것baki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킨다.

둘째: 자신과 가까이 지낸 대다수의 지인과 정인들이 현세를 떠나 저 세상에 자리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저 지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저들이 간 곳을 강렬히 열망하게 하여, 죽음과 (그들과 같이 할) 영원한 행복에 마주하게 한다.

셋째: 인간 자신의 끝이 없는 가난과 무능 중의 일부를 깨닫게 하고, 삶의 짐과 생활의 의무가 그 얼마나 무겁고 고된 지를 이해케 하여, 휴식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다른 세계로 가고자 하는 참된 희망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빛으로, 죽음은 사멸이 아니며, 거주지를 바꾸는 것일 뿐임을 보여준다. 무덤은

암흑으로 뒤덮인 시커먼 구덩이가 아니며, 빛으로 가득한 세계의 문이다. 그리고, 현세는, 그 모든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내세와 비교하면 지하 감옥에 다름 아니다. 그럼으로, 현세라는 지하 감옥에서 천국의 정원으로 오르는 것과 온갖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한 육신의 삶으로부터 휴식의 세계이자 영이 비상하는 창공에 이르는 것, 그리고 온갖 피조물들의 고뇌에 찬 소음으로부터 탈출하여 자비이신 분의 성정으로 가는 것은 (그럴 수만 있다면) 천(千)의 생명을 주고 소원할 만한 여행이며, 더 없는 행복이다.

다섯째: 코란을 듣는 사람에게, 코란의 참된 지식과 빛으로 현세의 진실을 일깨워 줌으로서, 현세를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헛된 짓임을 알게 한다. 즉, 인간에게 아래와 같이 이르고, 이를 입증한다;

“현세는 영광의 서(書)이다. 이 책의 철자와 문자는 그것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본질과 성상 그리고 이름을 증거 한다. 그럼으로, 그 의미를 잘 음미하여, 취하도록 하라; 그 걸치장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라.”

“(현세는) 또한 경작지이다. 씨를 심어 그 열매를 얻고, 잘 가꾸도록 하라. 쓸모 없는 것은 버려, 그것에 의미를 두는 일이 없도록 하라.”

“(현세는) 또한 설새없이 오고 가는 거울들의 집합체이다. 그럼으로, 그들을 통해 보여지는 존재를 알고, 그 존재의 빛을 느끼며 그 거울들에 투영된 (신의) 이름들을 이해하고, 그 이름들이 지칭하는 존재를 사랑하라; 그러나 깨어져 없어 질 그 거울의 파편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라.”

“(현세는) 또한 무역하는 곳이다. 그럼으로, 그곳에서

살 것은 사고 팔 것은 판 후 돌아 오라; 그러나, 상인들이 당신을 떠났다고 해서,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뒤쫓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지 말라.”

“(현세는) 또한 한시적 전시장이다. 그러므로, 배우겠다는 시각으로 관람하며, 그것의 추한 얼굴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존재 Cemil-i Baki를 쳐다보고 있는 숨겨진, 아름다운 얼굴에 주의를 돌려라. 스스로에게 이롭고 마음에 드는 구경을 한 후 돌아와라; 그러나, 저 아름다운 장면들을 연출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여 준 전시장이 그 막을 내린다고 해서, 어리디 어린 아이처럼 울거나, 떼쓰지 일이 없도록 하라.”

“(현세는) 또한 손님들을 위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만든 인자한 주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먹고, 마시며, 그에 대해 감사하라. (그 집의) 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라. 그런 후, 나올 때는 뒤돌아봄이 없도록 하라. 경솔하고 주제넘게 참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당신의 것이 아닌 일들에 의미 없이 나서지 말며, 불필요한 일들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등과 같은 명확한 진실들로, 현세의 내면에 존재하는 비밀들을 들어내 보임으로서, 현세를 떠남으로 생기는 부담감을 경감시키는 물론, 이성을 가진 자들을 황홀케 하며, 모든 것들과 모든 사건들에는 (신성) 자비의 자취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처럼, 성 코란이 저 다섯 가지의 면을 가리키고 있듯, 특정한 다른 측면들 또한 코란의 성구들은 드러내고 있다. 저 다섯 가지 측면에서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그 얼마나 가련한 자 이런가!

세 번째 편지

(이 글은 베두윗 자만이 자신의
제자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럼으로 오로지 그분께
찬미와 영광을 돌릴지니라.

자네는 자네의 편지를 통해, 여기서의 내 감정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었지. 그래, 그 수천의 감정들 중 하나만이라도 들어보겠나.

어느 날 밤, 나는 백 여 층의 높이는 뒹직한 시더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무 집에서, 별들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있었다: (그 하늘에서) 성 코란의 **실로 내가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며, 나타나고 지는 별들을 두고 맹세하나니**(성 코란 81: 15-16) 라는 성약(聖約)에서 기적의 승고한 빛과 (그 속에서) 빛나는 신비로운 한 편의 시를 보았다. 행성들, (그들이 가리워 지는) 식과 전개를 지칭하는 저 성구는, 참으로 뛰어난 예술의 경지와 하늘에 새겨진 교훈을, 시각을 가진 존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저 행성들은, (저녁이 되면 자신들을) 통괄하는 태양계에서 빠져 나와, 기존의 행성 군에 편입함으로써,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하늘을 수놓는다. 때론 자신들처럼 빛나는 다른 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 쪽의 아름다운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고, 때론 소행성군으로 들어가 (그들을) 지배하기도 한다. 요즘의 저녁 하늘에는, 지평선 위의 금성과 동트기 전에 반짝이는 그의 친구가 특이나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뽐낸다. 그런 후, 즉, 감시인으로서의 의무와 아름다움으로 수놓아진 하늘의 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후, 다시 돌아와, (그 지역의) 지배권자인 태양광의 영향권에 들어감으로서 그 자취를 감춘다. 자, 저 (성구에서의) 뜨고, 지는 것으로 묘사된 별들과 우리의 지구를, 우주 공간에서, 제각기 배 또는 비행선이나 되는 것처럼

완전한 질서로 회전케 하고 운행하게 한 존재의 지고의 권세를 태양의 빛만큼이나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 영광의 권세가 있어, (그것이) 배와 비행선들 내에 가득하니, (그 배와 비행선들 각각은) 지구보다 수 천 배는 더 크고, (지구가) 여덟시간 동안 가는 거리를 단 일초에 질주하는 속력을 보아라. 그리하여, 저 권세의 존재에게 믿음과 경배로 연계를 맺고 저 세상에서 그의 객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순한 행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비교하여 알지어다.

이런 생각으로 달을 쳐다보니, 달을 두어 그의 궤도를 운행케 하니 오래된 때마른 대추 야자나무처럼 다시 돌아오리라(성 코란 36: 39) 라는 성구에 의해 증거된 이적의 찬란한 빛을 보았다. 달의 자전과 공전, 순환과 복사, 그리고 지구와 태양을 양 축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히 계산된 달의 위치는 참으로 경이로워서, “그것(달)을 저렇게 배치하고 운행케 한 전능한 존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존재와 연관을 맺는 모든 이성의 존재들에게 불러일으킨다.

또한 달이 태양을 공전함에 있어, 그 공전의 경로를 단 한순간이라도 이탈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사소한 의무라도 경시함이 없음이니, 이를 주의 깊게 살피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성을 경이로 가득케 한 존재에게 영광이 있으소서” 라고 외치게 한다. 특히 5월 말 경에 보여지는 것과는 같이, 특정한 시기에 이르러 우리의 달이 가녀린 초승달 형상으로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가로지르는 때, 그리고 대추 야자나무가 그

굽어진 하얀 가지의 형상을 보여주고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포도 덩굴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저 푸른 하늘의 천막 너머로, 상상 속에 빛나는 거대한 한 나무의 존재를 생각해 한다. 마치, 저 상상 속의 나무로부터 한 가지가 뻗어 나와 그 가지로 저 (하늘의) 막을 찢고, 한 무더기의 포도송이와 함께 그 머리를 이 세계로 내밀어, 슈레아(플레이아데스 성단)와 초생달이 되었고, 여타의 다른 별들 또한 저 보이지 않는 나무의 열매가 되기라도 한 듯 상상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저 “메마른 대추 야자나무처럼”이라는 성구의 시적 비유를 음미해보자.

이런 생각의 끝에, *하나님께서서는 너희를 위해 대지를 유연하게 하셨나니 그 곳곳을 다녀 보라*(성 코란 67: 15) 라는 구절이 우리의 지구가 (한 존재에게) 종속된 승용선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 머리 속에 떠올랐다. 이로써, 우주 공간을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 한 커다란 우주선의 선상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그 곳에서) 나는, 말 또는 배와 같은 탈 것에 승선할 때 읽게 되는 순나 sunnet (무슬림, 하즈: 425; 아부 다우드, 지하드: 72, 74; 티르미즈, 다왓트: 46. 역주: 순나는 사도 무함만 - 그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 의 언행을 의미한다.) 로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저희에게 순종케하여 주신 그 분께 영광이 있으소서*(성 코란 43: 13) 라는 구절을 암송하였다.

또한, 지구가, 저와 같은 움직임은 통해, 영화관에서 온갖 상들을 투영하는 상영기로서의 의미가 주어졌음을, 하늘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그 상에 투영하고 있음을, 모든 별들을 마치 잘 조직된 한 군대와도 같이 (정연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저토록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음이니, 그것을 목격하는 이성의 존재들을 황홀케 하고 경탄에 젖게 만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약소한 대가로 저렇게도 아름다우며 숭고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하심이라! 여기서,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요점이 내 머리 속에 떠올랐다.

첫째: 며칠 전 한 손님이 나에게 질문을 한 적 있는데, 저 의심으로 가득 한 질문의 요체는 이러하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천국의 사람들은, 신의 은총으로, 빛 또는 부락Buraq과 같이 날아서 부활을 지나며,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렇다면, 지옥의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찬 무거운 짐을 짊어진 육신으로 어떻게 (그들의 목적지로) 가는가? 어떤 수단으로?”

내게 떠오른 답은 이러하다: 비유하자면, 미국의 국민들 모두가 국회로 초대받아, 제각기 커다란 배에 승선하여 그곳에 가는 것과는 같이, 우주라는 저 거대한 대양에서, 일년에 이만 오 천년 거리를 여행하는데 익숙한 지구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승객들을 태우고, 여행하여, 최종 목적지에 그들을 내려놓는다. 또한, 33미터마다 그 온도가 1도씩 증가하는 것으로 입증된 지구 중심에 존재하는 용암을, 여러 하디스hadis(역주: 사도 무함만 - 그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 의 언행록)들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 십 만 도에 이르는 그 화염을, 그리고 하디스의 전승에 따르면 현세와 중간계에서 대 지옥의 몇몇 의무들을 수행하는 유행불을 지옥에 쏟아 붓는다; 그런 후, 신의 명령으로 (지구는) 더 아름답고 영원한 형상으로 탈바꿈되어, 내세의 거주지들

중 하나가 된다.

둘째: 영광의 조물주, 지혜의 창조주이자 오로지 한 분이신 존재께서, (스스로의) 완전한 권능과 아름다운 지혜 그리고 유일하심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 한 두 가지의 재료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고, 작은 것으로 큰 의무를 이행토록 그 관계를 세우셨다. ‘말씀들Sozler’ (역주: 리살레이 누르 전집 중 일부분)의 여러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약 만물이 하나의 유일한 존재에 귀인 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만사는 쉽게 설명된다. 그러나 만약 만물이 저마다의 창조자와 저 나름의 원인들에서 그 존재 이유를 가진다고 한다면, 거부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왜냐하면, 군대의 한 장교나 한 건축 전문가처럼 일 개인이 수많은 군사들 또는 석재들에 하나의 단순한 행위로서 한 상황을 연출하여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내듯, 그러나 만약 이와 똑같은 상황과 결과를 얻기 위해, 군대의 병사들이나 돛의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석재 물들에 (그 일을) 위임해 버린다면, 무수히 많은 행위들과 난관들 그리고 그 만큼의 혼란만을 야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저 우주에서의 공전과 자전, 순환과 반사, 사계절과 주야의 순환 같은 행위들의 주체를 만약 유일한 존재에게서 찾는다면, 그 유일한 존재가, (자신의) 단일한 명령과 통일된 원 운동으로, 계절들의 순환 주기를 통해 순수 예술미를, 주야의 순환 과정에서 아름다운 지혜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외형적 운동들로부터 장엄한 장관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이, 저 장엄한 상황과 지고한 결과를 도출시킨다. 왜냐하면,

삼라만상이란 군대는 그 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이 원하시면, 지구 같은 한 개별적 존재에게 모든 별들의 지휘를 맡기고, 저 거대한 태양을 당신의 신민들을 위해 빛과 열을 공급하는 전등으로; 당신 권능의 발현체인 사계절을 베틀의 북(鬮)으로; 지혜의 서인 밤과 낮을 하나의 (악기의) 활로 만드신다. 매일 같이 달의 형상을 달리하시어, 시간의 계산에 유용한 달력을 만들도록 하신다. 그리고 별들에게는, 황홀경에서 춤추는 천사들의 수중에 놓여 있는, 저 찬란하고 우아하며 장엄하게 빛나는 램프의 형상을 주시는 것처럼, 지구에 속한 수많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세상 만물을 통제하고 조직하며 법제하는 유일 존재에게 귀인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때는 모든 태양과 행성들은 실질적 운동함으로서 무한한 속도로 끝없는 거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잘라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물론 우리의 이성으론 불가해한 일이다).

이처럼, 유일성에 끝없는 단순함과 용이함이 있고, 복수성에 끝없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이니, 예술가들과 사업가들로 하여금, 복수성에 유일성을 구하도록 할 것이니, 이로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단순함과 용이함을 얻도록 함이다.

요약한다면, 무릇 그릇된 길에는 끝없는 난관이 있고, 인도 받고 하나된 길에는 무한한 용이함이 있다.

영원한 존재 그 분이 바로 영원한 존재이다.

El-Baki Huve'l-Baki

싸이드 누르시

n